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24일까지 '건축! 문화로 시대를 열다' 주제로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 온라인 전시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오프닝 행사가 19일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열리며 건축문화 축제의 장을 열었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돌을 맞이한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오는 24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과 온라인 전시를 통해(www.jbaf.or.kr)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 등 대중이 모이는 대면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오프라인 전시로만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 주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문화의 하나인 건축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자는 의미의 '건축! 문화로 시대를 열다'이다.

건축문화제 전시에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46점, 한·중·일 건축사들의 우수작품, 서울시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 공공건축 작품전, 전통건축 한옥모형 기획전시, 건축드로잉 작품 등이 전시된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는 공공분야 대상을 차지한 '전주 새솔유치원'을 비롯한 4개의 작품과 일반분야 대상 '카페 캔버스'를 비롯한 7개 작품에 대해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각각 도지사 상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학생부' 대상 차지한 '흔적은 거리를 통해서', 금상 '체보선상', 현재의 노를 젓다 등 27개 작품들을 대상으로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건축인은 물론 일반인도 함께 쉽게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 복원과정을 담은 영상도 방송사 등의 협조를 받아 행사기간 중 상영된다.

작품을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장 전북대학교 소승영 교수는 "건축문화제 열기가 해가 갈수록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오프닝 행사가 19일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열리며 건축문화 축제의 장을 열었다.

폭 뜨거워지면서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진 건축가들의 명실공히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영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문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창의적 건축문화의 재변을 확대하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과장은 "생태계의 존망이 걸린 기후 변화의 시대에 도시공간에서 자연과 건축이 만나는 생태건축을 통해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건축가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개막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전북도 건축문화진흥 연합회 임원과 건축문화상 수상자 등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전주대, '온다라 인문주간' 온·오프 진행

31일까지 최명희문학관 포함 전시 일대서...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전주대학교는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소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가 10월 31일까지 '거리두기의 시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을 주제로 온다라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거리두기 시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운영될 예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유튜브 채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오프라인은 최명희문학관을 비롯한 전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19일부터 31일까지는 최명희 문학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전 함께하는 공감의 시간'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전라북도 000이다!'라는 주제로 일반부와 학생부를 구분하여 진행된다. 시상은 전체부 1등과 각 부별 최우수 1명, 각자 5명을 정하여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문 체험 '함께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은 전통부채에 선면화 그리기,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전과 체험은 최명희문학관에서 참여할 수 있다.

25일부터 31일까지는 심세보 교수(전주대학교 건축학과)와 함께하는 온라인 강의 '한국의 집, 한옥의 삶'이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한옥의 과학, 미학, 공간, 삶'을 주제로 총 4강이 진행되며, 감상평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채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인문주간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 수칙에 준수해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 지원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2021 문화예술교육 인력 연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성

장'이라는 주제로 이론·접근·적용의 단계별로 운영된다.

주요 강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이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비대면 교육 콘텐츠 시계와 이해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회차별 30명 이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22일까지 네이버 폼(http://naver.me/F8K6YDV)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력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r.or.kr)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6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26일까지 접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22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공연장 4곳(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과 전시장 4실(갤러리 S.O.R.I), 국제회의장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국제회의장의 이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야외공연장은 동절기를 제외한 4월 1일부터 협의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kosa7842@naver.com)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관 담당자(063-270-784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와 대관 가능일은 소리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내달 12일 공고할 예정이다.

/뉴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경.

'나의 n번째 사춘기' 기획 상영회

전주 영화 커뮤니티 무명씨네, 23일 프랑스여자 · 트루 시크릿 상영

전주 영화 커뮤니티 '무명씨네'는 사춘기라는 단어를 주제로 한 시그니처 상영회 '나의 n번째 사춘기'를 오는 23일 오후 4시 20분에 개최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나의 n번째 사춘기'는 매해 사춘기라는 키워드로 영화들을 선정하여 상영하는 기획 상영회이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나이 들을 알아가는 영화들로 구성했다. 상영 후 강지이 감독의 진행으로 관객들과 감상을 나누는 세네초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영 작품은 김희정 감독의 <프랑스여자>, 사피 네부 감독의 <트루 시크릿> 장편영화 두 작품이다. <프랑스여자>는 배우 김호정의 열연과 독특한 연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제8회 들꽃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과 촬영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트루 시크릿>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 줄리엣 비노쉬가 주연을 맡아 유능한 교수의 이면이 있는 복잡한 모습과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두 영화를 보고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며, 청년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실로 충분한지 등등 여러 질문과 답이 공유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이 들이 성장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더불어 과거의 찬란한 시기와 현재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모습들



에서 사회가 요청하는 청년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습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무명씨네가 주최/주관하는 '나의 n번째 사춘기'는 전주시 완산구 남남문길 58 남부시장 2층 하늘정원에 있는 도림타워북문 화공관에서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9시 50분까지 열린다.

예매는 링크(<https://linktr.ee/nonamecine>)의 구글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뮤지컬 '푸푸' 온라인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23일 어린이 뮤지컬 '푸푸'를 온라인으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통해 기획된 관악문화재단의 창작 뮤지컬로, 재단 측에 영상을 제공받아 진행된다.

세계명작동화 '보물을 찾는 아이들'을 원작으로, 지구 온난화로 기후 난민이 된 남극펭귄 푸푸가 물에 잠긴 마을로 떠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로보카폴리', '피노키오' 등을 제작한 채병훈 연출 뮤지컬 '아이온강', '공룡이 살아있다'에 참여한 김명제 안무감독 등 어린이 공연 경험이 많은 제작진의 참여로 흥미로운 공연이 될 예정이다.

공연 관람시간은 23일 0시부터 24일 24시까지 총 2일 간 진행되며,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온라인 문화체험실)과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기후 난민에 대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린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